



제3회

이봉창의사 마라톤대회

2007년 10월 14일(일) 10시 천안시 독립기념관
하프코스(21.0975km) / 10Km / 5Km / 3Km 펼쳐어





항일 애국투혼의 불꽃, 그리고 투혼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일본 동경 경시청 현관 앞 인도에서 마차를 타고 궁성으로 환궁하는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으로 던지는 '동경작안' 의 의거를 거사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체포되어 대역죄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해 10월 10일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

(1901. 8. 10서울~1932. 10. 10)

이봉창 의사는 1901년 8월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아버지 이진구(鎭球)씨와 어머니 손씨 사이의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용산 문창보통학교(文昌普通學校 : 지금의 효창초등학교)를 마친 뒤, 가정형편상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1915년 일본인 상점점원으로 취직했으며 1918년 용산철도국 소속의 만선철도(滿鮮鐵道) 기차운전견습생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1919년 3·1운동을 목격하면서 강렬한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스스로 서약했다.

1924년 11월 자기희생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성취시키겠다고 각오하고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형 범태(範泰)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사카[大阪]에서 철공소 직공으로 일하다가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기노시타 쇼조[木下昌藏]로 이름을 바꾼 뒤, 도쿄[東京] 나고야[名古屋] 요코하마[横浜] 등지를 전전하면서 일본어를 익히고 상점 점원, 철공소 직공, 잡역부, 일용살이 등을 하며 국내의 정세를 관찰하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가난과 병고 속에서 동지도 없이 혼자 힘으로 대사를 도모한다는 것이 역부족임을 느끼고, 6~7년간에 걸친 일본에서의 긴 방황을 끝내고 독립운동가들의 집결지인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가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린 그는 1931년 1월 상하이로 건너갔다.

상하이에 도착한 즉시 상하이 한인거류민단을 찾아가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민단 간부들은 일본말과 한국말을 섞어 쓰고 임시정부를 가정부(假政府)라고 일본식으로 부르는 등 그의 언행이 남다른 데 대해 의심을 품고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구(金九)의 주선으로 한인애국단



[상해를 떠나기 앞서 의거결행을 다짐하는 이봉창의사]



(韓人愛國團)에 가입한 뒤 일본 왕의 암살을 자원하여 1년 이내에 이를 실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당장 거사자금이 없었으므로 상하이의 일본인 인쇄소와 약기점 등에서 일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재미동포로부터 자금이 도착한 데 이어 상해병공창(上海兵工廠)의 주임으로 있던 중국군 대령 김홍일(金弘壹)과 중국인 류즈(劉峙)로부터 수류탄 2개를 입수함으로써 거사 준비가 마무리되자, 1931년 12월 13일 안공근(安恭根)의 집에서 두 손에 수류탄을 들고 일본 왕 히로히토[裕仁]를 처단할 것을 선서했다.



[경사청에 연행되어 조사실로 가는 이봉창의사]

수류탄과 거사자금 300원을 지니고 일본으로 떠나 이튿날 고베(神戸)에 입항한 그는 오사카로 옮겨 21일까지 머물다가 22일 밤 도쿄에 도착했다. 일본 왕 히로히토가 만주국 괴뢰황제 푸이[溥儀]와 도쿄 교외 요요키[代代木]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거행한다는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의 보도기사를 확인하고 상하이의 김구에게 관병식을 기회로 거사를 결행한다는 뜻을 알리는 암호전문을 타전했으며, 요요키 연병장에서 거행된 예행연습을 미리 둘러보았다.

1932년 1월 8일 도쿄 고지마치 구[麹町區] 밖 사쿠라다몬[田門] 앞에서 시민을 가장하여 기다리던 그는 오후 2시에 관병식을 마친 후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일왕의 행렬이 나타나자, 군중 속에서 달려 나와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나 일왕이 탄 마차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 데다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기수와 근위병에게 부상을 입혔을 뿐 일왕을 명중시키지는 못했다. 그 자리에서 품 안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 '대한독립 만세'를 3번 부른 뒤 체포되었다. 이봉창은 일본 경찰의 심문에 일체 불응한 가운데 예심조차 거치지 않고 진행된 그해 10월의 비공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한인애국단의 첫번째 거사였던 이봉창의 의거는 예상 밖의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의 각 신문들은 한국인의 애국적 기개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대서특필했으며, 이에 격분한 일본 당국은 군경을 동원하여 중국 신문사를 습격했다. 또한 이 의거는 당시 침체상태에 빠져 있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임시정부와 중국 정부의 항일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 일본은 이 의거의 영향으로 한층 거세진 중국의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니치렌종[一蓮宗] 승려 살해사건을 빌미로 상하이사변[上海事變]을 일으켰다. 1962년 이봉창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제3회
이봉창의사 마라톤대회

C / O / N / T / E / N / T / S

- 02 > 이봉창 의사 소개
- 04 > 대회사
- 06 > 축사
- 08 > 대회요강 및 경기종목 / 대회시상
- 11 > 코스안내(하프코스, 10Km, 5Km, 3km 휠체어)
- 15 > 행사장 배치도, 행사장 오시는 길
- 16 > 대회일정 및 참가자 유의사항
- 18 인라인패트를 및 페이스메이커
- 21 > 페이스 차트
- 22 > 참가자 통계현황
- 23 > 지난대회 이모저모
- 25 > 동호회 순위 / 독립기념관 무료 주차권 및 입장권
- 26 > 참가자 명단





75년전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던 日帝를 응징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의 경시청 앞에서 일본의 왕에게 수류탄을 던지셨던 義士 李奉昌 선생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래 마라톤은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올림픽대회가 생기면서 마라톤은 올림픽 경기의 으뜸가는 꽃이 되었습니다. 달린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면서 이를 통해 인간의 체력이 향상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개인의 체력이 향상되는 것은 그 개인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마라톤은 일제시대에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자 했던 이봉창 선생의 애국심을 기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함께 달리시면서 다시금 이봉창 선생이 당시의 조국에 대해 가졌던 마음을 떠올리는 계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이 대회를 기획하고 후원해 주신 빙그레 김호연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자기 체력에 맞는 리듬으로 달려 주시고 결코 무리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가을 날, 함께 달리면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는 마음으로 마라톤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문국진**



충절의 고장 천안을 찾아주신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일애국 투혼의 불꽃 독립운동가 이봉창의사의 독립의지를 되새기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3회 이봉창마라톤 대회가 선현들의 위대한 기상이 넘쳐흐르는 충절의 고장인 이곳 천안에서 이처럼 성황리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대회 참가자 여러분을 54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이봉창 기념사업회 김호연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라톤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극기정신을 키우며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레이스를 펼치면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해내는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마라톤은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운동이기도 합니다. 과거 일제하의 암울했던 시절에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오늘날에는 국민생활체육의 대중스포츠로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마라톤을 즐기는 동호인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동료와 함께 친목을 다지면서 오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의 인심과 정취도 함께 느껴보시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에 인사를 드리며, 여기에 모이신 모든분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장 성무용





이봉창의사 의거 75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혼이 깃든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이봉창의사 마라톤대회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및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독립기념관이 개관20주년을 맞이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독립기념관에서 이봉창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마라톤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봉창 의사가 도쿄의 경시청 앞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벌인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일제식민통치의 폭거를 규탄하고 독립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에서 패권주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일제강점기에 적도에서 항일애국투쟁에 앞장선 이봉창 의사의 항일투쟁은 더욱 값진 의거였으며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나라사랑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제3회 이봉창의사 마라톤대회에 참가해주신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환영하며, 이번 대회가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봉창 의사의 독립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대회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이봉창 의사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의 완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대회요강 및 경기종목 / 대회시상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이봉창 의사와 순국선열을 기리고자 열리는 이번대회는 불굴의 독립의지로 해방을 일궈낸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라톤을 통해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볼 본 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대 회 명	제3회 이봉창의사 마라톤대회
일 시	2007년 10월 14일(일) 오전 10시 출발
장 소	천안 독립기념관
종 목	하프(21.0975km), 10km, 5km, 3km휠체어
코 스	천안독립기념관 일원 신 21번 국도
주 최	 이봉창의사 기념사업회 천안시체육회
주 관	 e-Marathon www.emarathon.or.kr
후 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천안시  빙그레  KT&G Korea Tomorrow & Global
홈 페이지	http://www.lbcmarathon.com
대회사무국	1566-1936



경기종목

종목	구분	참가자격	참가비	제한시간	기록측정
하프코스	남,여	제한없음	30,000원	2시간 30분	넷타임
10km	남,여	제한없음	30,000원	1시간 15분	넷타임
5km(5.8km)	남,여	제한없음	25,000원	1시간	없음
3km휠체어	남,여	장애우	무료		

부분별 시상

종목	구분	시상내역	시상내용
하프	각 부문	남/여 우승 남/여 준우승 남/여 3위	5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4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3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10km	각 부문	남/여 우승 남/여 준우승 남/여 3위	5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4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3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5km(5.8km)	각 부문	남/여 우승 남/여 준우승 남/여 3위	4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3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2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

시상자 유의사항

- ※시상품은 입상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함멜에서 지정한 상품으로 지급됩니다.
- ※시상품은 시상식 후 개인 신체사이즈를 적어서 대회운영본부에 제출하시면 대회종료 후 함멜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택배발송해 드립니다.(타 제품교환불가)
- ※각 종목별 입상자는 골인 후 순위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을 지참하시고 대회 운영본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소지로 인하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상 순위는 건타임으로 하며, 공식기록은 넷타임으로 발표합니다. 해당 종목 출발시간 이외의 출발은 부정으로 간주하여 입상에서 제외됩니다.
- ※2년 이내 대한육상경기연맹 선수 경력자 및 기타 부정선수는 입상에서 제외되며, 추후에도 입상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받은 부상과 시상품 일체는 반환해야 합니다.

대회시상

연령별 시상

구분	연령	비고
청년부 Junior	20세이하(88년생~)	남녀 연령별 1,2,3위 우편으로 상장수여, 종목별 입상자 제외 5km참가자 제외
일반부 Intermediate	21세이상~50세이하 (87년생~58년생)	
장년부 Senior	51세이상(57년생~)	

기타 특별상

- **특별상** : 최연소, 최고령 참가상(현장참가자 중 최연소, 최고령 각명 당일 대회운영본부에서 수령)
- **최다 참가 단체상** : 1위~3위(상장수여)

